

# 창업교육의 대학교과과정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

목영두\*, 최명길\*\*, 전민준\*\*\*  
\*중앙대학교 대학원 창업학과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경학부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e-mail: [mok-yd@hanmail.net](mailto:mok-yd@hanmail.net)

## A Study for Curriculum Desig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y

Youngdu Mok\*, Myeonggil Choi\*\*, Minjun Chun\*\*\*

\*Dept of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교육을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고등학교 창업교육부터 대학 및 대학원의 창업교육,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일반 창업교육까지를 연계한 체계적인 창업교육의 설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도 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가장 핵심적 영역인 대학 학부의 창업교과과정의 바람직한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 국내대학 창업교육의 현황, 국내외 대학원의 창업교육 현황 등의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대학 학부의 창업교과과정을 공통기초과정과 전공선택과정으로 나누어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공선택과정은 전공 영역(major area)과 집중영역(concentration area)으로 나누어 설계할 것을 제언한다.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각종 규제를 풀어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1인 기업, 1인 지식기업, 1인 창조기업 등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가 탄실하지 않은 창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책은 과거의 경험에서와 같이 더 큰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실패는 창업자 개인에게는 인생의 실패의 한 단면이 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규모의 대소를 떠나 장사가 아닌 사업화의 관점에서 창업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잠재적 창업가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이 창업교육의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한다면 잠재적인 창업가를 육성하고 관련 학문의

발전을 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창업교육을 '사회 인프라'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대학의 창업교육은 직업탐색의 과정이란 관점으로 검토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창업교육은 그 어떤 창업교육보다도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과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의 창업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창업교육의 대학교과과정의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은 배제하고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을 중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의 개념, 창업교육에 관한 학자들의 창업에 대한 관점, 강조점, 범위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학 창업교육의 교과과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둘째, 현재 국내의 대학 창업교육현황과 국내외 대학원의 창업교육 현황을 분석했다.

셋째, 이를 기반으로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창업교육이 단계별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체계속에서 대학 창업교육의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분류해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한 대학의 창업교육과정 설계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창업교육의 개념과 현황

창업교육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며, 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창업교육은 대상에 따라, 참가자의 창업 준비단계에 따라, 계획사업에 따라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창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최근들어 창업교육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앞서 언급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소상공인진흥원, 각 지방자치단체, 창업관련 협회 및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창업교육이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학교교육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창업과목이 개설되고, 대학에서는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노동부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관련 과목의 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학부과정에 창업관련 학과가 개설되는가 하면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시작된 5개 창업대학원의 전공과정, 대학원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창업학은 본격적으로 독립 학문으로서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창업교육의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 교육과정의 개발도 미흡하고, 전문교육인력이나 교수방법, 교재개발 등도 부족해 체계적인 창업교육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체계의 기본체계라 할 수 있는 대학 학부과정의 창업교육 과정개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2.2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

대학 학부과정의 창업교육 과정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위해 창업교육의 대표적 학자인 4명의 학자들의 관점에

대해 조병주(1996), 한길석(2007)의 연구를 재 정리해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교육으로 세계 제일의 명성을 얻고 있는 Babson College의 창업교육 체계를 잡은 Ronstadt의 New School개념, 캐나다 제일의 창업교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호주의 한 대학에 학위과정을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한 McMullan & Long의 전략적 독창성 모형, 창업교육 분야에 있어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며, 이 분야를 체계화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최고의 공헌자로 인정받고 있는 Vesper의 창업관, Entrepreneurial Event라는 새로운 모형을 기초로 창업교육에 관한 과목을 설계한 Shapero의 기업가적 사건 개념이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표와 같다.

### 2.3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

구분	Ronstadt	McMullan & Long	Vesper	Shapero
창업에 관한 관점	New School	Growth Venture Position	Start-up Position	Entrepreneurial Event
강조점	체험적 학습방법	전략과 창조성	창업계획	창업발생조건과 개인동기 요인
창업교육의 범위	창업과정에 따른 교과목 설계	창업초기 과정과 성장 진입단계	창업의 시작 단계로 한정	창업발생조건 개인동기 창업기술/지식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으로 국내 최초의 것으로는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부의 교과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학 전공과 벤처창업학 전공으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현장에서 필요하나 기존 경영학에서 다루지 않은 실용적인 과목들을 포함하고 있다(조형래, 1998).

한길석(2007)은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에서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과정의 입수가 가능한 184개 4년제 대학에 한정된 실태조사에서 전체 표본의 40.1%인 75개 대학에 창업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고, 1과목 개설된 학교가 47개(62.7%), 2과목(24%), 3과목 이상 10(13.3%)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교과목의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벤처창업론, 중소기업 창업론, 창업론, 창업과 경영, 창업실무, 창업일반 등 창업에 대한 가이드적인 성격으로 교양강좌로 개설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문화된 창업교과목은 미흡하고 강의방식도 단순한 강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미, 오상훈, 양재경(2007)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정규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창업강좌 현황은 164개 대학에서 창업강좌가 운영되어지며 그 중 1/5 정도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상기 연구에서 제시된 대학별 창업관련 과목 개설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중소기업론, 중소기업경영론, 벤처창업론, 벤처경영론, 창업론, 창업경영론, 창업실무 등의 기초적 과목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E 비즈니스 창업, 소자본창업, 소호창업 등의 분야별 창업강좌가 12.8%를 차지했다. 나머지 1%는 CEO 특강, 산학특강 등 특강과목으로 개설되었다. 1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130개(79.3%), 2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30개(18.3%), 3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3개(1.8%), 4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1개(0.6%)로 나타났다.

아직은 개설과목이 창업기초 과목에 제한되어 있으나 창업관련 과목의 개설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개설과목 역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3. 대학의 창업교과과정의 설계 방향

#### 3.1 단계별 창업교육의 교육 방향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창업의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고,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및 대학원, 고등학교 등의 학교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등 다양한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은 창업의 교수가능성과 학문의 정당성에 대한 학제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립학문으로서의 창업학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에 창업교육을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 인식하고 대상과 목적에 따른 창업교육의 각 단계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고등학교의 창업교육은 창업이 직업을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창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윤희(2004)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창업을 진로 선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창업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실시 학교 수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전 계열의 모든 학생들에게 소양 창원의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잠재적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개설하되 McMullan & Long의 Vesper의 Start-up 단계는 물론 창업기업이 충분한 자생력을 갖게 되는 전 과정, 즉 성장진입단계(Growth Venture Position)까지를 포함한 창업의 관점을 견지해 창업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속성인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사업경영

능력, 창조성/혁신이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한다.

대학원의 석, 박사과정은 창업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전공분야 및 연구방법론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코자 한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창업교육은 창업을 Start-up 단계에 국한한 Vesper의 관점에 기반해 창업단계에서 필요한 Skill을 우선적 교육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 3.2 대학 학부의 창업교과과정의 설계 방향

대학 학부의 교육과정은 앞서 제시한 교육 방향에 입각하되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창업기초과목인 공통기초과목과 전공영역(major area) 또는 집중영역(concentration area) 과목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2.1 공통기초과정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과목으로 창업학 개론과 기업가 정신 등과 같은 기초과목이 제시될 수 있다.

##### 3.2.2 전공선택과정

이는 창업학을 전공하거나 창업학과 관련된 전공자의 집중영역(concentration area)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길석(2007)이 통합모형에 의해 도출된 교과과정으로 제시한 모듈인 창업환경분석, 창업기회 탐색, 사업개념 개발, 창업역량 개발, 창업과 성장 등과 관련한 과목을 개발하고, 이들의 이수 순서까지를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관심있고 창업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창업의 형태 및 산업분야에 대한 과목도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 4. 결 론

창업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창업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의 수 및 과목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설계는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고등학교, 대학원의 석, 박사 과정이 개설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창업교육을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고등학교 창업교육부터 대학 및 대학원의 창업교육,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일반 창업교육까지를 연계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 국내대학 창업교육의 현황, 국내외 대학원의 창업교육 현황 등의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대학 학부의 창업교과과정을 공통기초 과정과 전공선택과정으로 나누어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공선택과정은 전공영역(major area)과 집중영역(concentration area)으로 나누어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미국 및 호주 등의 외국 대학 중 대표적인 창업학 대학의 창업학 교과과정의 분석을 통해 공통기초과정, 전공선택과정의 필요과목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나누어 델파이 기법을 사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창업기반과 교육현실이 고려된 바람직한 창업교육과정을 도출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김주미, 오상훈, 양재경,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2007.

[2] 박윤희, “실업계 고등학교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직업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pp.83-110, 2004.

[3] 조병주, “창업교육의 교과내용결정모형과 전공과정의 개발방향”, 한국중소기업회지, 제18권 제2호 pp. 157-184, 1996.

[4] 조병주, “창업교육 : 교육과정 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27-48, 1998.

[5] 조형래, “새로운 창업교육의 방향”,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49-74, 1998.

[6] 한길석, “창업교육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47집, pp. 379-405, 2007.

[7] 한주희, 고인정, “창업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6권, 제2호. pp.105-131, 2007.

[8] McMullan, W. Ed and Wayne A. Long, “Developing New Ventures: The Entrepreneurial Option”, New York, N. Y.:Harcourt Brace Jovanovich, 1990.

[9] Ronstadt, R,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summer 1985, pp.7-23.

[10] Shapero, Albert and L. Sokol, “T도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dited by Calvin A. Kent, Donald L. Sexton, and Karl H. Vesper, Englewood Gliffs, N. J.: Prentice-Hall, 1982, pp.72-87.

[11] Vesper, K. H. and W. Ed McMull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from Courses to Degre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3, No.1, 1988, pp.7-14.